

# 잃었다 찾은 기쁨

The Joy of Finding the Lost

누가복음 15:1-1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2월 8일 설교

<sup>1</sup>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sup>2</sup>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sup>3</sup>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sup>4</sup>“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sup>5</sup>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sup>6</sup>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sup>7</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sup>8</sup>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sup>9</sup>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sup>10</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 이스라엘의 착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뜻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가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본을 보이면서 다른 민족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인도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는 다른 민족도 그 사랑을 받게 인도하는 대신 오히려 그 사랑을 못 받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구약 인물이 하나 있지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방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곧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요나는 싫다며 도망을 갑니다. 왜 싫습니까? 이방인 나라에 가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만의 하나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회개할까 봐 도망을 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용서해 주시겠지요? 이방 민족은 멸망을 당해야지 용서받는 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니느웨 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혼쭐이 난 다음 마지못해 가서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 다음 성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움막을 짓고 니느웨가 불벼락을 맞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지요? 대대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기분이 아주 나빠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이래서 제가 처음부터 안 가겠다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회개고 뭐고 다 치우고 처음 말씀하신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라 요구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하나님 싫습니다” 하고 항의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 요나가 움막을 지어 놓고 거기 지내는데 대충 짓다 보니 햇빛을 잘 못 막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 넝쿨 하나가 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원하지요. 그러다가 벌레를 보내 박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햇볕이 또 따갑습니다. 줘다 뺐었다 이게 뭘니까? 요나가 불평을 하지요. 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시 시원하게 해 준 박 넝쿨 하나가 그렇게 아까우면서 좌우를 분간도 못하는 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여여빠 보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 이방민족까지 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구약 요나서입니다.

## 배타적인 즐거움

유대인 나무랄 거 없지요? 문제는 요나입니다. 한국말로 ‘요 나’가 늘 문제입니다. 좋은 건 나만 차지하고 남에게는 안 주겠다는 이런 배타적인 이기주의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배를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타적인 이기주의!” 배는 왜 두드립니까? 배타주의가 피부에 와 닿으라고 두드렸습니다. 배타라서 두드리고 요나라서 두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즐기되 나누기는 싫다는 겁니다. 사람이 쓰기 위해 물건을 만듭니다.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지는 게 못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쓰고 안 쓰고 상관없이

가졌다는 사실 하나로 즐거움을 줍니다. 회소성이라 하지요? 귀금속이 그래서 비쌉니다. 금이 흠만큼 많다면 그걸 누가 귀하게 보겠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독점이 안 되니 귀한 줄도 모릅니다. 남은 못 가져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심리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건데도 나만 가졌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배 한 번 더 두드립니다.

똑같은 심리가 물질 아닌 정신세계에도 작용합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감사주일에 잠깐 말씀드린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 일색입니다. 남들은 불의, 토색, 간음 같은 죄를 많이 짓는데 저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매주 두 끼 금식을 하고 또 십일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지금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는 저 먹고살자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짓도 안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꾸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나는 저 죄인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다 나는 잘났다 하는 우월감인데 그게 다 배타적인 우월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누가 더 거룩한지 그걸 기준으로 천국에도 가고 하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다 썩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속에는 더러운 탐욕이 가득합니다. 소위 성자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 바리새인의 투덜거림

오늘 본문에 이런 배타적인 우월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입니다. 둘 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시렁거립니다. 왜요? 예수라는 분이 말씀도 잘 하시고 해서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사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 아닙니다. 속담에도 있지요?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 예수라는 분은 세리하고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께서 주로 어울리신 대상이 세리 또 창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주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라는 사람은 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이 본문 다음에 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셋 다 주제는 같습니다. 뭘니까? 잃었다 찾은 기쁨입니다. 상황을 다르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지만 말씀하시는 요지는 “잃었다 찾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양 제가 길을 잘못 든 거겠지요? 어리석은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결과 위험에 빠졌습니다. 둘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이니 제 발로 어딜 간 건 아닙니다. 그냥 분실입니다. 살다보면 그냥 없어지지요. 동전을 잃어버리면 그 동전은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어지지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아예 작심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형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셋 다 잃었다 찾은 기쁨이라 했습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양이 길을 잃었으니 목자가 가서 찾아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온 집안을 뒤져 다시 찾습니다. 셋째 비유에서는 제 의지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의지를 꺾고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기쁨을 줍니다.

## 잃어버린 양

첫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에 비기고 있습니다. 가축에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왜 양일까요? 첫째는 어리석기 때문이고 둘째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때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개 두어 마리를 조수로 데리고 수백 마리의 양을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리석다 보니 이따금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생깁니다. 열심히 풀을 뜯어먹다가 저도 모르게 멀리 가게 되고 그러면 무리가 안 보여 길을 잃고 사방 헤매게 됩니다. 저 판에는 찾는다고 다니겠지만 방향은 동서남북 네 개니까 길을 잃을 확률이 3/4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홀로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저 혼자서는 좋은 풀을 찾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굶어죽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에 이리나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 가능성이 큼니다. 하룻밤만 밖에 있어도 짐승 밥이 될 겁니다. 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먹이다가 우리로 데리고 가기 전에 수를 세어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백 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한 마리가 뵈입니다. 없어졌습니다. 무리 가까이 있으면 쉽게 찾겠지만 한 번 길을 잃은 양은 사방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마 멀리 갔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니 동서남북을 다 뒤져야 됩니다. 목소리를 알아들을까 고향도

지를 겁니다.

마음이 다급합니다. 어두워지면 끝입니다. 목자의 다급한 마음을 예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혼아훅 마리를 들에 두고” 간단 하셨습니다. 목자는 저 하납니다. 동료한테 나머지를 맡겨두고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혼아훅 마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하였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요? 한 마리가 중요하니까, 아혼아훅 마리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아혼 아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양을 돈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 하지요. 아혼아훅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까닭은 그 한 마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는 양의 무리에서 이탈함으로써 특별한 양이 되었습니다. 길 잃은 양은 특별한 양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이 양을 향합니다. 모든 관심이 이 양의 안전에 쏠립니다. 가축이든 뭐든 동물을 기르면 나중에는 한 식구처럼 되지 않습니까? 내 보호를 받아야 할 양이 길을 잃고 바깥 저기에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 다니며 찾습니다. 언제까지 다니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다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전에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여인이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동전입니다. 하루 품삯 정도니까 요즘 백 달러쯤 되는 돈입니다. 처음 열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밖에 갖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찾습니다. 집이 어둡다 한 걸 보니 가난한 집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집이 좁으니 복잡하겠지요? 먼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쓸면서 찾습니다. 꼼꼼하게 쓸면서 언제까지 찾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찾겠지요.

백 달러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이는 정성을 보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 개 가운데 아홉 개는 아직 그대로 있고 한 개만 없어졌다 하였으니 돈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부린 건 아닙니다. 게다가 찾은 다음 잔치를 벌였다 했지요? 돈이 아까워 그렇게 열심히 찾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드라크마 열 개가 한 세트가 되어 머리 장식 같은 장신구로 쓰였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마련한 치장금일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하나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홉 개는 그대로 있으니까 하고 무시할 수 없는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순간 그 하나가 특별해졌습니다. 그냥 있는 아홉 개는 놔두고 없어진 그 하나에 온 마음이 쏠려 정신없이 찾게 됩니다.

## 기쁨으로 벌인 잔치

양 백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 찾았습니다. 이걸 산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백 빼기 하나는 아혼아훅. 결론은 아혼아훅 더하기 하나는 백. 백에서 시작해 백으로 끝났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처음하고 같아졌습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 찾으러 갔더니 아 이 녀석이 그 사이 친구를 사귀어 여러 마리가 더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다가 미국독립선언문 원본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 개에서 하나가 줄었다가 겨우 찾아 다시 열 개가 되었습니다. 양도 동전도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은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는 우선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잃었던 걸 찾아 즐겁습니다. 아혼아훅 마리는 그냥 몰고 오고 잃었던 한 마리는 어깨에 맨 채 집으로 옵니다. 마음 졸이게 하고 고생시킨 그놈이 뭐가 예뻐 이렇게 대접합니까? 오자마자 잔치도 벌입니다.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함께 즐기자 합니다. 잔치에서 양고기를 먹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하자면 비용이 드라크마 하나보다 더 들 겁니다.

초대받은 친구랑 이웃들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양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고 잃었다 찾았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고서도 아마 어디등절했을 겁니다. 상식선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겨우 양 한 마리 다시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나왔을 겁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모르는데 곁에서 보는 사람은 “재 왜 저러냐?” 하고 고개만 가우뚱하게 됩니다.

## 잃었다 찾은 기쁨

이 두 비유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잃었다 찾은 기쁨이라 했습니다. 잃었다 찾은 기쁨이 컸다면 그건 그 전에 잃어버

린 슬픔도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겠지요?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목자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흔아홉 마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잃어버린 그 하나에 온 마음이 쏟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았을 때 느낀 기쁨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 찾아 건진 돈의 가치보다 더한 지출을 해 가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주님이 이제 비유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꼬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지요? “그래, 너희는 참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구나. 너희는 거룩하게 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겠지. 그런데 하늘에서는 너희 같은 사람 아흔아홉 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단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투덜거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 예수를 만나 회개한 이 사람들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한 이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좀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지요? 어느 부분입니까? 잔치한다는 부분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아 놓고 그것보다 더 비싼 잔치를 합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아 놓고 돈은 훨씬 더 씩니다. 말이 안 되지요? 주님의 비유에도 이렇게 엉성한 부분이 있구나 싶습니까? 주님 비유는 빈틈이 없습니다. 초대받은 친구와 이웃이 어리둥절하며 이해하지 못할 이 어색한 상황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양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는 것,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이렇게 사람 불러 잔치를 하다니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는 이해 못 한다, 너희의 그런 배타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 못 한다 하시는 뜻입니다.

## 함께 즐기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잃었다 찾은 기쁨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잃었다 찾은 기쁨은 눈에 뚜렷이 보이지만 함께 나누자는 뜻은 잘 보이지 않는 대신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디서 누가 기뻐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안 쓰셨습니다. 비슷한 비유를 전하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지만 (마 18:14) 여기서는 표현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양을 찾았다 하실 때는 “하늘에서” 더 기뻐할 것이라 하셨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셨습니다. 누가 기뻐하는지 그건 말씀하시지 않고 기쁨이 있는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는 우선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면 어딈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을 둘러 선 천사들입니다. 이들 앞이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구름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크게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좁은 속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하던 유대인들의 생각, 사람들은 다 더럽지만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 하던 바리새인의 생각,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 아닌 사람, 내가 더럽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너희도 얼른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누리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시렁거리지만 말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잔치를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꾸지람입니다.

## 하나님의 기쁨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얻을 교훈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지요. 서기관처럼 율법을 잘 알지도 잘 지키지도 못합니다. 국제청에는 안 다니지만 우리는 다 세리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받을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잃었다 찾은 기쁨,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나 하나를 다시 찾았다고 어깨에 메고 오시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치까지 하셨구나,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찾아 헤매셨을까, 그게 주제입니다. 내가 바로 잃었던 한 마리 양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찾으셨는지 그걸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에서 깨닫습니다.

둘째는 기쁨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배는 안 두드러도 되겠지요? 남이 잘 되면 웬지 배가 아픈 이 못된 심보 얼른 버리고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누가 명품 가방 샀다고 같이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 생겼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야 누가 은혜를 받았구나, 누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구나,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그 잔치에 여기 있는 우리도 이미 동참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는 것 쉽지 않으셨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천사들이 둘러선 그곳에서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권수경 목사)